

百濟의 佛像彫刻

—해방후의 新資料를 中心으로—

黃 壽 永

△▽

三國중 百濟佛像에 대한 最初의 주목은 아마도 日本人 關野 貞博士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韓末에 내한하여 古蹟調査를 主管하였으며 그 후 朝鮮古蹟圖譜와 朝鮮美術史등을 엮었다. 彫刻에 대하여서는 따로 「朝鮮三國時代の 彫刻」이란 一篇을 一九三三年에 發表하고 그안에 百濟를 넣고 있다. (그의 遺著인 「朝鮮의 建築と藝術」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著述에 기록된 百濟의 佛像을 살펴보면 五點인데 모두 金銅像으로서 그중 銘文이 있는 것이 一點이다.

이들 金銅像을 分類하면

三尊立像 一點(在銘)

如來立像 二點(內一點은 大破)

菩薩立像 二點

다시 이들을 所藏別로 나누면

扶餘保勝會 二點

日本人個人 三點

이 된다. 그런데 同氏は 「朝鮮美術史」에서 다시 一像을 追加하였는데

그것은 一九一一年 忠北 中原郡 老隱面에서 出土되어 日本人 黑板勝美博士에 의하여 調査發表(黑板勝美·三國時代 朝鮮唯一의 金銅佛、「考古學雜誌」十五卷 六號、一九二五年 六月 刊行)된 建興五年丙辰銘 金銅釋迦文像背光(國立博物館扶餘分館陳列)이다. 그런데 이 建興銘像에 대하여서는 일찌기 필자가 異議를 학계에 提出하여 百濟作이 아니라 高句麗像으로 發說한 바① 있었다. 그것은 建興이란 年號와 出土地 그리고 고구려가 확실한 類例 등에서 主張한 것인데 그에 대한 필자 오늘의 생각에는 變함이 없다.

그런데 이들 金銅像 五點중에서 오늘 三點만이 國立博物館에 있고 二點(日本人 丸山虎之助와 市田次郎② 소장)은 日本으로 搬出되었다. 이와 같이 오직 金銅像만이 收拾되었으며 그중 優品은 모두 日本人의 手中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關野博士에 의하여 주목된 이같은 遺品 이외에도 그 사이 扶餘地區에서 발견되어 隱密裡에 日人商人을 통하여 搬出된 것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며 그중에는 重要作③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틀림없다. 日政時에 「湖南線出土」라고 俗稱되던 故全瑩弼씨 소장인 癸未銘金銅三尊像 또는 해방 후 公州邑內에서 出土되어 故車明浩씨가 소장한 金銅菩薩立像(국보 一一八호) 등의 入手經緯에서도 그같은 事實을 녀너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같은 地下埋藏物로서의 出土像 이외에 日政期에 있어서 그들 日本人에 의한 寺蹟發掘事業에서 出土된 佛像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주로 朝鮮古蹟研究會에 의하여 扶餘의 軍守里④、東南里、佳塔里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그 末년에 이르러서는 소위 內鮮一體를 표방하던 扶餘神宮의 造營計劃에 따라서 扶餘古都가 濫掘되었는데 이때 발굴된 부여 定林寺址、扶蘇山西腹寺址 및 東部建物址、錦城山寺址、부여 舊衙里寺址 등의 報告書는 마침내 오늘까지 刊行되지 않고 있다. 그중 대표 作品으로서 上記한 軍守里寺址內의 塔址出土像을 들으면 다음과 같다.

扶餘 軍守里寺址出土 金銅菩薩立像(寶物 三三〇호)

扶餘 軍守里寺址出土 石造如來坐像(寶物 三二九호)

이외에 현재 扶餘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上記 日政末 扶餘神宮造營 期の 寺址發掘(藤澤一夫教授擔當)을 포함하여 收拾된 佛像資料는 그 全部가 石材 또는 塑像의 破片뿐인데 그중 특히 注目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石像(扶餘博物館 소장)

扶蘇山東部建物址出土 半跏像(下半身)⑤

扶餘錦城山寺址出土 菩薩立像(下半身)

扶餘東南里出土 菩薩像(上半身)⑥

(2) 塑像(扶餘博物館 소장)

扶餘扶蘇山西北寺址出土 一括品

위에서 열거한 백제의 佛像資料는 모두 일찍부터 알려졌거나 또는 考古學的發掘에서 수습된 자료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오늘 주로 國立扶餘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사실은 또한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같은 그 전부가 地下에서 발견된 불상 이외에 地上에서 전래하여 오다가 日政期에 扶餘博物館으로 移動되어 현재에 이르러 있는 巨軀의 石像하나가 있으니 扶餘 錦城山石佛을 들어야 하겠다. 이 石佛은 현재 新築된 陳列室內에 있는데 필자는 해방 이래 오랜 세월 石佛을 注目하여 왔으며 관계자료를 集成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이 作品의 추정연대가 日政 때부터 막연하게 百濟作으로 간주하던 通念에 대하여 疑問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日政期の 文獻⑦이 있고 또 日政末 한때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故熊谷宣夫教授의 論文⑧이發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石佛立像에 대한 필자의 異見은 더우기 해방후 瑞山地區에서 後述하려는 바와 같은 巨軀의 三尊立像이 새로 조사되므로써 더욱 굳어갔다. 특히 瑞山雲山三尊의 中央如來立像(높이 二·〇五m)이나 泰安三尊중의 左右如來立像(높이 左 약 二·二m 右 약 二·二m)을 이 錦

城山原在如來立像(높이 二·八五m)과 比較하므로써 錦城山像의 造成年代가 瑞山·泰安像보다 훨씬 降下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石佛의 原在地點이 百濟寺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서도 이 石像을 그대로 百濟作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부여 定林寺址의 石佛坐像이 그 臺座 밑에 百濟瓦가 깔리고 그 周邊에 百濟礎石이 전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石佛坐像은 엄연한 高麗作品인 사실과도 對比할 만하다. 필자는 이 錦城山石佛이 定林寺像과 달리 立佛인 差別은 있다 하더라도 또한 後代에 이르러 古寺址에 奉安된 作品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百濟古都에서 造成된 後代의 佛像이 古代의 傳統樣式을 따랐다는 사실은 마치 高麗의 石塔이 扶餘地域에서는 定林寺址의 百濟塔樣式을 따라 建立되어서 소위 百濟式 石塔이 流行하였다는 사실과 對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百濟佛이 아니라 百濟式佛像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扶餘에서의 後代의 塔像이 그 百濟樣式을 模本으로 삼아서 造形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益山金馬面彌勒寺址의 百濟石塔을 標하여 同郡 王宮里에 五層石塔이 高麗初에 建立될 수 있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 石佛에 대하여서는 最近 그 原在地點에 대한 조사를 다시 기하고 있으므로 관계자료의 정비를 기다려 앞으로 別稿를 마련하려하므로 이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자 한다.

△二▽

위에서 들은 백제의 佛菩薩像은 모두 解放이전에 주로 日本人에 의하여 經營된 박물관에 소장되었거나 그들에 의하여 私藏된 것으로 비교적 資料價値가 높은 것을 들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寺蹟調査등에도 言及하였다. 다음은 해방 이후에 있어서 百濟彫刻史에 대한 研究와 그에 따르면 新像의 收拾 등 주요한 것만을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여 보겠다.

먼저 國立扶餘博物館의 새로운 發足과 더불어 故洪思俊氏를 中心으로

백제 문물에 대한 새로운 調査가着手되었으나 그것이 本軌道에 오른 것은 六·二五가 收拾되고 六〇年代에 들어서부터였다. 그사이 扶餘地區에서 우연하게 收拾되는 滑石佛像의 破片들이 박물관 등에 集成되어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 資料는 모두 그 후 필자에 의하여 發表^⑨되었다. 또 그 후 金永培公州博物館館長에 의하여 紹介된 半跏石像의 新例^⑩가 있다. 또 이같은 滑石像 이외에 작은 石製菩薩頭部나 土製頭像 등이 발견되어서 扶博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資料는 모두 破片이었으며 資料價値가 적은 것 뿐이었다.

다음에 扶餘地區에서의 本格的인 寺址調査를 들어야 하겠다. 먼저 東國大博物館에 의한 扶餘 石城面 臨江寺址의 地表調査가 一九六四年十月~十一月에 이루어졌는데 泥像資料^⑪가 收拾되었다. 이어서 國立博物館에 의한 扶餘郡 恩山面 琴公里 金剛寺址^⑫의 발굴이 一九六四、七年二 次 있었으나 佛像의 出土는 없었다. 그 후 七〇年代에는 發掘作業이 없었고 八〇년에 이르러 政府에 의하여 慶州地區에 있어서 扶餘·益山地區의 調査가 着手되어서 邑內의 定林寺址와 扶蘇山西北寺址 그리고 益山の 彌勒寺址의 全面發掘이 實施되었다. 이 중 扶餘寺址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政末에 發掘된 바 있었으므로 遺物出土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定林寺址에서는 多幸히 石像과 塑像、泥像 등의 破片多數가 發見되므로서 비록 完形은 아니라도 새로운 知見을 提供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發掘을 통하여서도 그 成果란 것이 彫刻品에 있어서는 모두 破片뿐이었으나 百濟彫刻史의 연구는 이같은 資料에서나마 進行되어야 할 줄 알 수가 있었다.

위에서 말한 博物館 또는 文化財管理局에 의한 扶餘地域調査에서 收拾된 佛像資料 以外에 그사이 더욱 重要な 遺品들이 忠淸·全北 등지에 收拾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 部門에 유의하여오는 個人에 의하여 이루어졌던지 또는 埋藏文化財로서 申告되므로써 國庫에 歸屬된 것으로 金石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金銅像

- 傳公州邑金鶴洞出土 金銅菩薩立像(국보 一二八호)
- 公州郡儀堂面出土 金銅菩薩立像
- 扶餘邑窺岩面新里出土 金銅佛菩薩像
- 傳扶餘出土 金銅僧像立像(서울 閔丙壽氏 소장)
- 全北金堤郡聖德面大木里出土 銅板佛四點
- 瑞山郡雲山面普願寺址出土 金銅如來立像
- 石像

- 瑞山雲山面迦那峽 磨崖三尊立像(國寶 八四호)
- 瑞山泰安面白華山 磨崖三尊立像(寶物 四三二호)
- 益山郡三箕面蓮洞里 石佛坐像(寶物 四五호)
- 益山郡三箕面胎峯寺 一光三尊石像
- 傳扶餘出土 蠟石佛菩薩立像(扶博)

以上の 金石像 특히 石像은 모두 國都의 南北에서 우리의 새로운 注目을 받았는데 그 중 瑞山·泰安三尊像 兩例같은 것은 모두 巨品으로서 百濟彫刻史연구를 위하여 그 所在地點에 대한 주목과 더불어 매우 귀중하다. 確實한 場所에서 地上에서 傳來한 이들 百濟의 三尊像兩例가 늦게나마 우리의 注目を 받은 것은 百濟美術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開眼과 着手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과거에 있어서 오직 公州·扶餘 등 國都에만 局限되었던 우리의 좁은 視野가 그 故土全域으로 擴大되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百濟의 彫刻資料는 그것은 넓은 視野에서 계속 꾸준히 追求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필자가 근년에 이르러 우리의 것이 차차 우리 눈에 들게 되었다고 거듭 말하여오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集中的 研究는 이 部門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重大資料를 檢出할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近年에 이르러 京鄕各地에서의 埋藏文化財가 거의 申告되는 사실은 또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것은 地上의 徵表가 거의 消失되었기에 앞으로는 오직 그들에게 希望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층의 注目과 資料의 漸増과 視野의 擴大가 이루어질 때 百濟彫刻史의 實相을 파

약하는 길이 멀지않아 우리 앞에展開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三▽

위에서 대략 今世紀 이래 内外人에 의하여 주목된 百濟의 佛像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여 왔다. 그리고 日政期에 비하여 그 質量과 種別이 또한 꾸준하게 增加되어온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들을 다시 綜合하여 佛像의 種別을 나누어 如來像, 菩薩像, 半跏像 등 三大樣式에 대한 考察을 進行하기로 하겠다. 그것은 佛教初傳 당시인 三國시대에 있어서의 대략 이같은 三樣式 造形이 佛教各國에서 고루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 如來像

如來는 곧 佛을 가리키는 바 古代의 造形은 이를 獨尊 또는 最小單位인 三尊의 樣式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獨尊은 坐像과 立像의 差



圖 1. 鄭智遠銘 金銅三尊像

別이 있는 바 三尊像의 경우에 있어서는 立像의 경우가 더욱 많다. 그리고 佛身以外の 莊嚴具로서는 光背와 臺座를 上下에 갖도록 하였는데 이같은 上下의 附屬具가 고루 具存하기란 매우 어렵고 특히 光背의 경우 에 그러하다. 다음에 造像의 材料로서는 金銅이 앞서고 다음에 石材와 泥土인데 百濟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百濟의 作品으로서 塑像이나 泥像의 完形의 것은 아직 收拾된 바 없다. 그리고 이곳에서 列擧하는 作品은 그 出土나 收拾經緯가 모두 확실한 것을 選定하였다.

(A) 金銅三尊像 (圖 一)

이 樣式像은 오직 一例^⑬가 부여 扶蘇山 送月臺에서 一九一九년에 발견되었을 뿐이다. 현재 扶博에 陳列되어 있는데 등근 臺座와 光背와 함께 一鑄되어 있다. 本尊은 素髮로써 큰 肉髻을 지녔고 長方의 相好는 謹嚴하며 通肩衣의 衣紋은 左右로 전개되었으며 兩手는 與願・施無畏의 通印을 보이고 있다. 舟形光背 左右端에는 合掌한 菩薩立像이 있어 伏



圖 2. 癸未銘 金銅三尊像

蓮單瓣座를 밟고 있다. 光背에는 火焰紋과 本尊頭上에 化佛一驅가 배치되고 있으며 周緣帶가 마련되어 있다. 背面에 銘文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음각되어 있다.

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塗

이像과 같은 양식의 金銅像으로서 上記한 建興五年銘 光背(14)가 현재까지 百濟作으로 전하며 오늘날 扶博에 陳列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 銘文과 出土地(忠州) 등에서 高句麗作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욱 온당할 것이다. 또 最近에 國寶 一三四호로 지정된 金銅菩薩三尊像(15)(黃圭董씨 소장)도 百濟作으로 추정되었으나 필자는 주로 그 出土地가 江原道 春川 부근으로 알려진 사실이나 그 樣式 등에서 또한 高句麗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더욱 확실한 關係資料를 얻어 考察을 進行하고자 하므로 上記 建興銘像과 더불어 百濟作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扶蘇山像과 같은 관계자료가 확실한 金銅一光三尊像은 아마도 오직 이 一例 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日政 때 出土되어 民間에 소장된 국보 七二號인



圖 3. 扶餘 佳塔里出土 金銅如來立像

癸未銘三尊像은 出土地 등 資料가 확실하지 못하나 또한 百濟의 作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臺座까지 具備한 優品인데 七世紀初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바 있으나 年代 등 異見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元來 이같이 三尊佛의 脇侍菩薩立像으로 추정되는 光背片像 二例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 하나는 일찌기 日政初에 아마도 公州에서 收拾되었다고 추정되는 金銅菩薩立像(16)(현재 扶博 陳列)이 있는데 높이 七·六cm의 小像이나 光背破片이 같이 달려 있는 完形이다. 寶冠에는 雙角突起가 있고 天衣의 X字形과 두 손으로 가슴에 寶珠를 잡은 모습이나 身側의 鱗形이나 單瓣伏蓮座 등에서 六世紀의 百濟作으로 추정하여도 좋을 것 같다. 다른 一例는 海방 후 東國大學校 博物館에 新收된 陳列品으로 出土地는 未詳이나 一光三尊像의 脇侍였던 菩薩立像(17)이다. 또한 높이 五·五cm에 불과한 小像이나 天衣의 X字交叉와 兩手棒珠形式과 蓮花座양식을 갖추고 있다. 六〇年代 南韓出土로 보아 먼저 百濟作으로 함께 추정하여 둔다.

(B) 金銅如來像

立像(18)로서는 一九一三年 扶餘邑 佳塔里寺址(圖 3)에서 발견된



圖 4. 瑞山出土 金銅如來立像



圖 5. 扶餘軍守里 石造如來坐像

作品이 扶博에 있다. 大破되어 頭部와 手足이 없으나 通肩大衣의 褶皺 등 당대의 樣式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높이 약 12cm로서 또한 金銅像의 으뜸이 된다. 그리고 이보다 작으나 鍍金 등 良好한 新例로서는 一九六八年 瑞山郡雲山面龍賢里 普願寺址出土像^①을 들 수 있다. 이 立像은 素髮이며 通肩衣의 樣式이나 兩手印 등 當代의 樣式을 잘 보이고 있어 六世紀後半의 作品으로 추정되나 애석하게도 臺座가 없다. 높이 九.五cm이다. 이외에 公州博物館에 小像이 있어 同地 陵岩寺址出土라고 전하고 있으며(높이 약 七cm) 日人 丸山虎之助의 小品^②은 현재 行方을 알 수 없다.

坐像으로서는 매우 작으나 一九五九年 부여 窺岩面 新里에서 出土된 作品^③을 들어야 할 것이다. 方座에 꿰어 앉았고 兩手는 禪定印의 古式을 지니고 있다. 前傾한 頭部는 身部에 비하여 크고 通肩衣의 衣紋을 刻하였다. 扶餘에서 出土된 金銅如來坐像으로서 아마도 唯一例인 동시에 그 양식이 일찍기 서울 佛心에서 出土된 如來坐像^④(中國作)으로서 기 四〇〇年頃으로 추정)과의 樣式的 系聯을 짐작케 함이 있다. 높이는

五.四cm인데 녹은 두꺼우나 鍍金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六世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C) 石造像

百濟에서의 石彫像은 金屬佛보다도 늦게 六世紀後半에 비롯하는데 그 試圖로서 軟質의 蠟石이 愛用되고 있다. 이 같은 初期石像으로서의 完形은 아마도 一九三九年 부여 軍守里寺址(塔址)에서 발견된 石造如來像^⑤을 唯一例로 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國博에 소장되어 있는데 方形臺座 위에 앉아 通肩大衣가 全身을 덮어 臺座에 이르러 소위 裳懸座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兩手는 胸前에서 禪定印을 보이고 있다. 背面은 衣紋을 새기지 않고 削平되어 있는 것도 古式을 보이는 바 이 坐像은 부여 窺岩面新里出土의 金銅如來小像(上學)과 同系의 作品으로 보아야 하겠다. 六世紀後半의 作으로 추정된다.

六〇〇年경에 이르러 백제의 佛彫刻은 마침내 天然의 岩面을 택하여 巨大한 三尊佛을 조각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백제 彫刻地盤의 成熟을 가르는 동시에 中國本土에서의 石像造成의 影響을 또한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 國土에서도 먼저 中國과의 交通要衝으로서 생각되는 忠南瑞山地區에서 着手되었다. 해방후 五〇年代末에 이르러 우리에게 의하여 처음으로 着眼된 兩例는 이미 그 이름을 위에서 들었다.

먼저 瑞山 泰安三尊佛^⑥은 西海를 面한 白華山頂 가까이 東面하여서 三尊立像을 새겼는데 그 配置가 매우 특이하다. 그것은 二如來 一菩薩의 構成으로서 左右兩端에 巨軀의 如來立像을 두고 中央에 그보다 훨씬 키가 낮은 菩薩立像을 배치하였는데 各像 上下에는 각기 寶珠形頭光과 單瓣伏蓮座를 새기고 있다. 如來立像(높이 약 二.四m)은 작은 肉髮、偉丈夫의 相好, 넓은 兩肩, 當당한 體軀를 지녔고 通肩大衣에 與願施無畏의 手印을 보이고 있다. 菩薩立像은 高冠、兩手棒珠、X紋天衣 등에 서 또한 古式을 전하고 있다. 造成이래 木造瓦葺의 前室이 유지되어서 歷代의 瓦片이 礎石과 같이 조사되었는데 百濟寺蹟의 하나로서 그年代

는 六〇〇年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하나의 磨崖三尊像(圖6)은 泰安佛과는 달리 景勝의 땅인 雲山面伽耶山峽에 있다. 또한 東面하여서 天成의 斷崖를 이용하고 있다. 三尊의 배치는 通式을 따랐으나 左右의 脇侍는 金銅像과 같은 同一樣式이 아니라 左像이 立像임에 대하여 右脇侍는 半跏思惟形의 坐像이다. 中央如來立像은 全高二·八m의 巨像으로서 素髮, 크게 뜬 兩眼, 通肩大衣, 與願·施無畏의 手印 등을 보이고 있으며 三尊 上下에 蓮花와 頭光은 泰安三尊과 同式이다. 그러나 그年代에 있어서는 이 三尊이 泰安像보다 늦어서 七世紀에 들어서의 造形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右脇侍는 특이하게도 半跏菩薩像으로서 높이 一·六六m인데 高冠, 古拙의 微笑, 上半身 裸形, 下半身에서 台座에 흐르는 衣褶 등 原形을 오늘날에 지너오고 있다. 左菩薩은 또한 高冠, 古拙의 微笑, 腹部에서 V字形을 이루는 天衣 그리고 兩手棒珠의 백제보살상의 특징을 지니는 높이 一·七m의 立像이다. 이들 左右脇侍는 아마도 당대의 信仰을 말하여 彌勒과 觀音의



圖 6. 瑞山雲山磨崖三尊佛

로 추정할 바 있었다. 그리고 이곳서 멀지 않은 普願寺址에서 上擧한 백제 金銅如來立像의 出土는 百濟寺蹟을 추정케 하는 동시에 이들 金石像의 親緣을 또한 오늘에 보여 주었다. 이상 三尊兩例는 모두 조사후 그 保護를 위하여 서로 前室架構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같이 百濟國土의 西北境에 磨崖石像이 전래하는 사실에 비하여 그 南方인 全北 益山땅에는 圓刻石像 兩例가 전하고 있어 또한 差別相을 지니고 對照를 이루고 있다.

먼저 益山郡三箕面蓮洞里의 如來坐像(圖7)은 오늘 그 頭部가 없고 一部損傷이 있으나 또한 古式을 지니고 있으며 또 特記할 것은 높이 十一尺에 이르는 一枚大石의 舟形光背를 現存하고 있는 사실이다. 坐像은 通肩大衣에 右手胸前 左手膝上의 印相을 지녔고 兩膝의 衣紋은 臺座로 내려 裳懸座의 양식을 남기고 있는데 이같은 如來坐像의 手印과 台座樣式은 그後 아마도 碑岩寺 石像의 阿彌陀像의 그것으로 이어진다. 이곳 台座는 巨石을 이용하는 古式을 따랐으며 光背는 身光을 지닌 擧身光으로서



圖 7. 益山蓮洞里石造如來坐像



圖 9. 扶餘新里出土 菩薩立像



圖 8. 扶餘軍守里 金銅菩薩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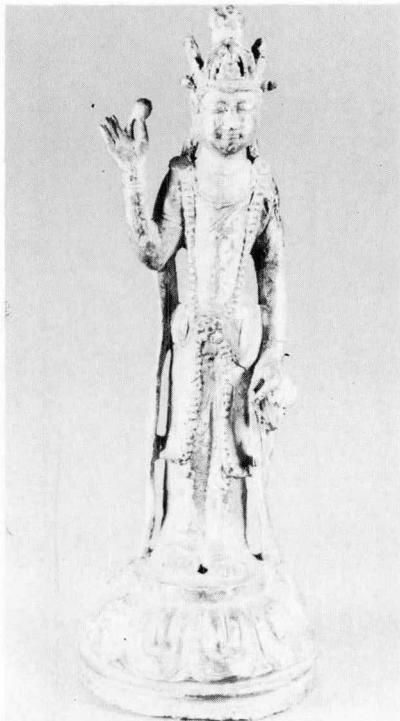


圖 11. 扶餘窺岩里出土 金銅菩薩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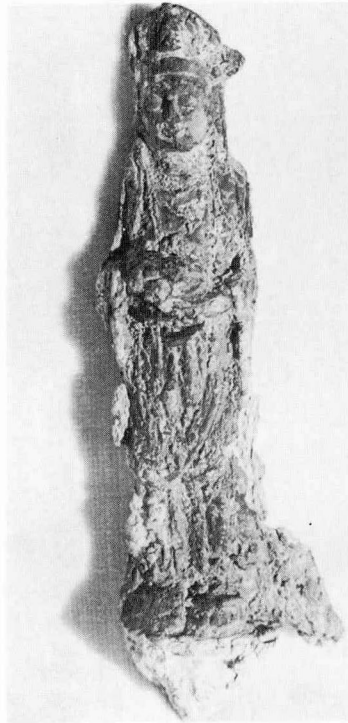


圖 10. 扶餘新里出土 菩薩立像

七軀의 化佛이나 周緣의 火焰紋等 形制와 紋儀에서 또한 古式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類例로서는 먼저 日本 法隆寺本尊의 그것을 들수 있는 사실도 또한 注目할 만하다. 이곳서 蓮花紋瓦當 등의 발견으로 百濟末期 七世紀 前半의 作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이 坐像과 隣在하는 胎峯寺三尊像²⁷은 本尊坐像·左右脇侍菩薩立像의 一光三尊佛로서 近年에 이루어진 移安粉飾에서 原形을 크

게 損傷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方形臺座에 이르기까지 一石造의 作品으로서 또한 七世紀 前半으로 추정된다. 寺址에서 百濟의 刻印平瓦나 古代銅鏡²⁸ (扶博陳列)이 出土된 바 있어 小規模의 寺址로 추정된다. 위에서 들은 石像은 모두 그 收拾이 확실하였거나 또는 傳來場所를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小品으로서 出土後 商人의 손을 거쳐 國博에 入手된 二尊立像²⁹이 一點 알려져 있다. 白色의 蠟石

像으로 損傷이 없는데 부여 出土라는 口傳이 거의 확실한 듯하다. 臺座를 잃었는데 一如來 一菩薩의 各立像으로 모두 顔面이 몹시 파손되었다. 圓形頭光과 圓座를 上下에 지니고 直立하였는데 如來像의 垂下된 大衣나 菩薩의 二段U形의 天衣樣式이 주목된다. 이 같은 白色蠟石像은 他品과 더불어 곧 中國六朝末의 白玉像을 蓮想케함이 있으며 한편 樣式上 齊周像을 따르고 있다. 背面에 山岳紋이 重疊되어 있어 부여 窺岩 出土 山景紋博을 연상케 하는데 峰頭가 둥글고 立體感을 살린 彫法을 보이고 있다. 높이 十六cm.

以上에 설명한 것은 모두 完品이었다. 그러나 破品이기는 하나 日政時(一九三九) 부여 扶蘇山城에서 出土된 石造頭像³⁰이 있어 如來像의 것으로 보인다. 높이 약 九cm.

(II) 菩薩像

(A) 金銅立像

小像으로 모두 尺未滿의 金銅立像인데 出土地가 모두 알려져 있는 것이 多幸이다. 그리고 上擧한 日本人 市田次郎舊藏品을 除外하고는 거의 國博에 陳列되어 있다.

(1) 扶餘軍守里寺址出土立像³¹(高三寸八分)

三圓板을 장식한 寶冠을 썼으며 扁平한 相好, 先尖頸飾, X字天衣, 身側의 鰭形衣紋 그리고 重瓣蓮座 등에서 六世紀後半作으로 보인다. 鍍金이 아직도 잔여한다.

(2) 扶餘窺岩新里出土像³² 二軀

一九五九年 出土된 一括品안에는 菩薩立像 二軀가 있어 각기 樣式이 다르다. 그 중 寶珠形 頭光과 蓮花座와 더불어 一鑄된 一像은 寶冠形이나 手印, X字衣紋 그리고 크기에 이르기까지 (1)의 軍守里像과 거의 同一하다. (높이 一〇·二cm) 他一像은 損傷이 심하나 高冠形式이나 兩手捧珠 등이 泰安이나 瑞山三尊의 菩薩立像과 類似하다. 像高 三·九cm.

(3) 扶餘窺岩出土立像³³(市田次郎舊藏)

현재 日本 京都에 있다. 또 하나의 菩薩像(4)과 같이 一九〇六年에 出

土되었는데 三面寶冠, 屈折된 身部, 二段의 天衣, 瓔珞의 장엄에서 七世紀中葉에 가까이 이르고 있어 隋·唐佛의 영향이 보인다. 左手는 내려 寶瓶을 잡았는데 觀音으로 추정된다. 높이 약 二七cm로서 백제 금동보살상으로는 大形에 속한다.

(4) 扶餘窺岩出土立像³⁴(圖 11)(日人 庭瀨舊藏, 현재 國博所藏)

(2)와 같이 一九〇六年 出土되어 日本人手中에 들어갔다. (2)와는 달리 複蓮座에 直立하였으며 右手를 들어 寶珠를 잡았고 左手는 내려 衣紋을 잡고 있다. 上半裸身인데 瓔珞帶는 腹部에서 交錯되어 있고 天衣는 身側을 따라 臺上에 이르고 있다. 寶冠에 化佛이 있는데 또한 觀音으로 추정된다. 높이 六寸九分.

(5) 傳公州邑金鶴洞出土立像³⁵(圖 12)

해방후의 新像으로서 公州出土가 거의 틀림없다. 出土후 公州古物商 梁氏를 통하여 서울 車明浩氏가 買入한 것이다. 後面이 조각되지 않아 板佛에 가까운데 三面寶冠과 日本法隆寺夢殿 菩薩立像을 연상케 하는 근엄한 相好, 身側을 따라 내려온 天衣와 교차된 瓔珞의 장식, 寶瓶을 잡은 右手 그리고 眼象을 뚫은 六角臺座의 양식 등에서 古式과 더불어 대좌 등 새로운 樣式이 보인다. 높이 十五cm로서 六〇〇年경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국보 一一八호)

(6) 公州儀堂面松亭出土立像³⁶

一九七四年에 埋藏物로 申告된 優品으로서 臺座까지 一鑄되어 있다. 낮고 둥근 單瓣蓮花座에 直立하였는데 三面冠에는 化佛이 있으며 넓은 얼굴, X字天衣, 배에서 交錯된 瓔珞 등 古式을 지니면서 裝飾에서 새로운 手法을 보이고 있다. 右手는 들어서 蓮봉을 잡았고 左手는 내려서 寶瓶을 잡고 있다. 鍍金이 또한 良好한데 全高 二四·二cm, 公州國立博物館에 진열되어 있다.

以上에서 설명한 金銅立像들은 그 出土資料가 따른 作品이기에 그 價値가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遊離되어 日政 때 國博 또는 個人이 收藏한 金銅像에 있어서 다음의 二像은 그 樣式的 特徵

특히 그 兩手捧珠에서 百濟의 菩薩像 또는 그 系列의 作品으로 高찰하 여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만 그 所在와 높이 등 관계 사항을 記錄함에 그칠까 한다.

金銅菩薩立像(圖 13)(높이 十二·五 cm) 國博 소장, 兩手捧珠하고 衣 紋에는 打點紋이 있다.

金銅菩薩立像(8)(높이 十八·八 cm) 傳慶南居昌出土로서 日政 때 故全堂 彌氏が 買入하였었다. 현재 寶物 第二八五호로 指定되어 있다.

(B) 石像·泥像

또한 立像으로서 完形은 三尊像의 左右脇侍立像에서 먼저 그 類例를 찾을 수가 있다. 위에서 三尊佛을 먼저 들었을 때 菩薩像도 함께 설명 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다시 그 名稱만을 들어두겠다.

瑞山迦那峽三尊菩薩立像(向左)

瑞山泰安三尊菩薩立像(中央)

다음에 圓刻作品으로서 石造 또는 泥造의 佛菩薩像이 多數 造成되 었을 것이나 完形의 作品은 하나도 없고 간혹 當代의 寺址에서 우연하 게 또는 發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破片의 出土寺址에서는 부여 에서 扶蘇山西腹寺址, 定林寺址, 臨江寺址, 舊校里寺址, 錦城山西南寺



圖 12. 公州出土 金銅菩薩立像

址등이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더욱 增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사 실에서 百濟에 있어서는 특히 그 扶餘郡邑期를 통하여 現品을 전하는 金石像 이외에 塑像 그리고 오늘 그 痕迹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木像의 造成이 크게 流行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추정은 「百濟時, 以 土木爲神像, 率百官祭之」하였다는 文獻이나 日本의 初期佛像이 木像 더 우기 法堂主尊같은 巨像에 있어서 그러하였던 사실은 그대로 그 당시의 百濟에서도 또한 아주 同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木像과 같이 塑像이 流行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주로 材料 求得의 容易함과 彫塑의 간편함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한다. 中國史料에 「寺塔 甚多」의 나라도 기록된 百濟에 있어서 佛像의 需要는 이같은 土·木材 料에 의하였을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이곳에 記錄하여둘 것은 백제의 菩薩像으로서 金銅像이나 石像에서 半跏形式像을 除外한다면 坐像의 造成이 아니 보인다는 사실 인데 당시의 中國이나 日本이 또한 동일하였던 듯하다. 如來像에 있어서는 三尊의 主尊으로 또는 獨尊으로서 坐像의 遺例가 있었다. 그러나 本尊이 立像 또는 坐像일 경우 左右菩薩像만은 모두 立像이었다. 다만 後述하려는 金堤出土의 銅板佛에 있어서 三尊 모두가 坐像인 一例가 最



圖 13. 國立博物館 소장 金銅菩薩立像

近에 알려져 있다.

(Ⅲ) 半跏思惟像

백제 半跏思惟像에 대한 주목은 해방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필자가 一九四〇年代 後半 國立博物館에 奉職하면서 國內에서 珍rare하는 金銅大像 二軀의 解明을 기하려는 시도에서 이들이 造成된 三國시대 各국에 있어서의 基礎調査가 必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먼저 日政末期에 부여 扶蘇山 東部 建物址에서 出土된 蠟石 半跏像(圖 14)(下半部)을 扶博에서 주목하였으며 이 實物이 바로 日本 書紀에 기록된 鹿深臣에 의하여 五八四年 日本에 傳達된 「彌勒石像」과 同式 同大의 것이라는 藤澤一夫教授의 論考³⁹⁾에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의 古刹에서 오늘에 전래하고 있는 金銅 또는 木造의 半跏像을 注目하게 되었다.

그 후 六·二五戰亂이 收拾된 후 필자는 古왕의 半跏像資料의 檢討에



圖 14. 扶餘出土 石造半跏像

서 그들이 모두 古新羅의 작품으로 추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他二國의 資料로서 上記한 扶蘇山出土 石像片을 除外하고는 全無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사실은 古왕에 있어서 주로 日本人에 의하여 이루어진 古蹟調査가 古都中心이라는 사실 특히 百濟에서 그러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全域에 대한 우리 視野擴大를 기하려하였 다. 그리하여 五〇年代末에서 六〇年代에 걸쳐서 瑞山·燕岐等地에서 새 로운 半跏像資料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한편 해방직후 金東鉉氏에 의하여 南下한 高句麗 金銅像의 조사와 경주 松花山 전래의 既知石像의 검토에 서 나아가 마침내 경북 奉化에서 東洋最大의 半跏石像을 注目하기에 이르 러 앞으로 이들의 綜觀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數年前에는 鄭永鎬교수에 의하여 忠北 中原 可金面에서 磨崖半跏像 新例에 대한 주목이 있었다.

이와같은 해방후 우리 손에 의한 이 樣式像에 대한 주목은 百濟에 있어서도 확실한 자료를 확보케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主要 品目은 이미 위에서 列擧한 바 있었다.

다음에 이같은 백제의 半跏思惟像을 고찰함에 있어서 百濟에서의 彌勒信仰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半跏樣式像이 當時의 彌勒菩薩로서 信仰된 사실은 上記한 日本書紀의 「彌勒石像」으로서의 기록뿐 아니라 後述하려는 忠南 碑岩寺 碑像에서 阿彌陀三尊과 同時에 造成되었으리라고 추정된 別名의 半跏像三尊의 并存 그리고 같은 燕岐 蓮花寺 碑像銘에서의 「阿彌陀彌」의 判讀 등 文字資料에서도 알 수 있다. 또는 三國遺事 卷三 眞慈師條에 전하여준 新羅僧 眞慈가 彌勒親見을 위하여 公州 水源寺를 찾는 기록이나 同卷二 武王條에 보이는 益山에 建立된 三國 最大의 大伽藍 彌勒寺의 經營과 彌勒三會의 法像 등 비 록 零細한 자료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의 興味를 모으는 사실은 百濟가 日本에 불교를 初傳하였을 때 太子像과 釋迦傳記인 「說佛起書卷」을 보내왔다는 日本의 기록이 있다. (元興寺伽藍緣起流記資財帳) 그런데 이곳에 보이는 太子



圖 16. 金提出土 銅板半跏像



圖 15. 金提出土 銅板三尊像

제점인데 이같은 문
야 할 새로운 문
로 더욱 유의하여
연구에서 앞으
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에 있어서의 半跏
像研究에서 앞으

像을 가르켜 半跏
像으로 推定하는
田村圓澄^④교수의
論文은 또한 주목
을 받아야 할 것
이다. 그 까닭은
이 半跏樣式像은
본래 印度·中國
에서 그 시초에는
悉達太子의 모습
을 造形하였기 때
문이다. 만일 일
본에서 전하는 記
錄을 信憑할 수 있
다면 半跏像이 지
니는 原義에 따라
百濟에서는 彌勒
菩薩로서의 信仰
과 더불어 太子像
으로서의 造形이
있었던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痕跡이 日本에서 엿보이는 사실을 소홀하게 넘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瑞山三尊像의 名號推定에서 中央立像은 且置하더라도 左右菩薩像을 觀
音과 彌勒으로 각기 추정하는 것은 이들의 樣式考察에서 이루어진 것이
기도 하다. 그리고 昨年에 全北 金堤에서 小品이긴 하나 銅板半跏像이
出土된 것은 全北初有의 發見例이며 百濟初有의 金屬像으로서 동시에
우리 視野의 擴大를 말하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東洋에서의 半跏像은 韓半島에 이르러 彌勒像으로서 깊은 信
仰을 받았고 마침내는 三國中 古新羅에 의하여 大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半跏像의 造成은 三國에서 모두 있었으며 각기 受容과 造
形의 差別相 以外에 또 서로의 긴밀한 交流사실을 追求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韓國半跏像史에서 百濟가 마땅히 차지하여
야 할 자리는 앞으로 더욱 더듬어야 할 것이다.

(IV) 銅板佛像

백제의 造像史에서 처음 注目된 이들 銅板佛像資料一括計 四點은 一
九八〇年 三月 全北 金堤郡 聖德面 大木里에서 참으로 우연하게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埋藏物件으로서의 申告 鑑定 報償이 모두 이루어지고
필자에 의한 現地踏査와 報文作成^④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다만 그 品目만을 들어두고자 한다. 이 金堤板佛의 出現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百濟佛像의 研究를 위하여서는 資料地域의 擴大를 기하는 동
시에 앞으로 新資料出現을 기다리는 忍耐과 努力이 필요함을 통감할 수
가 있었다.

一、三尊佛(圖 15)··모두 坐像인데 上下에 天蓋와 蓮花座가 있다.

크기··가로 七·三×세로 七·八×두께 〇·六(cm)

二、半跏思惟菩薩三尊像(圖 16)··三尊으로 本尊을 半跏像으로 삼고
左右에 羅漢立像各一軀가 있다. 天蓋와 蓮座이외에 本尊背後에
屏風形이 注目된다.

크기··一六·七×六·八×〇·七(cm)

三、十四列坐尊像··上下二列 各列七軀의 坐像이 並座하고 있다.

크기: 八·八×五·〇×〇·七(cm)

四、四佛坐像: 上下二段으로 배치되었는데 四板中 가장 작다.

크기: 三·五×六·一×一·〇(cm)

이들 四枚의 銅板佛은 또한 당대의 信仰에 따라 造形된 것인데 본래 작은 龜形에 奉安되었던 것이다. 各像의 樣式에서 君王의 作品보다 年代가 降下하여서 七世紀中葉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唐代佛像의 影響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들의 年代를 고찰함에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에 있어 隋·唐의 작은 板佛이 金屬 또는 泥土로서 이루어졌는데 君王에 알려진 新羅 또는 日本에서의 銅·博佛 등과 또 크기에 있어서 差別이 있으나 경주 雁鴨池出土의 金銅板佛이 또한 金提板佛과 같이 鑄成이란 사실은 日本의 그것이 押出佛이란 사실과 對比하여 주목되는 바이다.

(V) 碑 像

이 碑像은 一九六〇년부터 약 三年間 필자에 의하여 忠南 燕岐郡 全東面 多方里 碑岩寺를 中心으로 收拾된 計 七個石을 가르킨다. 그 중 四個石에는 銘文이 있어 年代의 推定이 이루어졌으며 主尊佛像으로서는 阿彌陀佛과 彌勒菩薩半跏像을 安置하였다. 그리하여 癸酉·丙寅·己丑 등의 干支로 記刻된 年代를 찾아 新羅統一直後 六七〇~六八〇年代로 比定하였는 바 이것은 記銘중에 보이는 達率같은 백제의 官等과 眞·木 등 백제 大姓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新羅의 乃末 大舍 등의 新羅官等이 混在하고 있는 사실과 또 佛像樣式 그 자체를 함께 考察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모두 蠟石系의 軟石에 細刻되었는데 百濟滅亡直後 全氏 등 有力者들에 의하여 소규모의 願堂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奉安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혹은 碑岩寺 三像과 같이 原場所에서 전래하였거나 또는 아마도 日政初에 寺址를 떠나 私設法堂에서 信仰되어 왔다고 추정된다. 이들 七個石 중 五個石이 다시 그 후 國立博物館 서울本館(三個) 同 公州博物館(二個) 東國大博(一個) 등으로 移管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碑像의 調査內容은 發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四面碑像인 이들

一連의 작품은 七世紀後半에 들어서서의 百濟系 彫刻의 好例로서 매우 귀중한 作品이다. 그리하여 이 記銘石像이 보여주는 佛菩薩像의 樣式은 아니라 그 莊嚴具로서의 光背나 像龕 千佛 등 일찌기 개개의 佛像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在銘의 實物로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中國에서 流行하였던 碑像系 作品이 비록 작은 것이기도 하나 百濟故土에서 一括 收拾된 사실은 三國末에서 新羅統初에 걸쳐서 流行한 백제 佛像彫刻의 殘影을 오늘에 보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己丑銘石像의 主尊인 阿彌陀佛坐像이 右手로서 降魔觸地印을 結하고 있는 사실이나 蓮花寺七尊石像後面의 獨尊如來像이 또한 이와 같은 手印과 右肩 遍袒을 보이는 사실은 모두 太白山 浮石寺 本尊이나 軍威三尊 그리고 吐含山 石窟庵本尊 阿彌陀佛坐像의 그것과 同一함에서, 또 半跏像 兩例의 樣式에서 日本 飛鳥·白鳳期 金銅像과의 連關을 볼 수 없었던 사실 등에서 三國에서 新羅統一期에 이르는 過渡樣式을 考察함에 특기할 만하다. 이하 各像에 대한 설명을 省略하고 오직 그 目錄만을 다음에 적어 두고자 한다.

名 稱	年 代	傳 來 場 所	所 藏
癸酉銘全氏阿彌陀三尊像	六七三	忠南燕岐碑岩寺	國博、國寶 一〇六號
己丑銘阿彌陀及諸佛菩薩像	六八九	同 上	國博、寶物 三六七號
半跏思惟菩薩像	六七三	同 上	國博、寶物 三六八號
癸酉銘千佛三尊碑像	六七三	忠南鳥致院瑞光庵	公州博物館、國寶 一〇八
戊寅銘四面石像	六七八	燕岐西面蓮花寺	同 上
七尊石像	七世紀後半	同 上	同 上
三尊石像	七世紀後半	公州正安面	東國大博物館

△四▽

위에서 百濟의 佛像彫刻에 대하여 개관하여왔다. 日政初에서 비롯하

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國土에서 수습된 重要員은 아마도 거의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金銅像으로서 日本으로 搬出된 작품이 個人의 手中에 있어 아직도 公開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그것은 百濟에 관하여서는 그 資料가 더욱 稀貴한 現實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國內에서 소장되고 있는 것은 國立博物館을 비롯하여 民間品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移動이 容易한 小像이 아니라 오늘날도 原位置를 지키고 있는 瑞山磨崖三尊 兩例는 모두 指定文化財로 保護를 받고 있으며 碑岩寺系石像도 거의 國立博物館에 移管되어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런데 本論에서 들은 百濟佛像은 그 年代가 거의 백제 扶餘都邑期(聖王十六年 五三八~六六〇)에 이루어진 것인 바 필자는 이 期間을 대략 前後의 二期로 大別하여왔고 다시 각기 長期治政의 威德과 武兩王 兩代의 각 四十年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百濟佛教美術의 中興은 이보다 앞서서 公州 都邑期인 聖王治世(五二三~五五二)에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百濟 枕流王元年(三八四) 東晉으로 부터의 佛法傳來 이후 聖王代에 이르는 약 一世紀半의 空白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空白期에 대한 우리의 着眼과 研究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는 확실한 작품에도 우리는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空白期는 且置하고 公州遷都 末期에 이르러 文獻에 처음 보이는 梁과의 빈번한 交通과 畫師 工匠의 來朝事實을 먼저 注目하는 바이다. 아마도 이 梁朝와의 文物交流 그리고 梁의 武帝의 信佛과 百濟 聖王의 그것이 서로 相應하여서 百濟國의 佛教中興의 契機를 잡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公州에서 大通寺같은 本格的 寺院創立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公州에서 다시 扶餘로의 遷都가 바로 聖王代 後半인 五三八年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威德·武兩代의 八十餘年의 長期治政은 百濟佛教의 隆盛을 가져왔다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寺塔甚多」의 나라로서 佛教造形의 發達이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듯하다. 日

本에 대한 佛教始傳이 또한 聖王代(五二三~五五三)에 있었고 法師·工匠의 大學渡日이 또한 威德王代에서 역역하게 읽을 수가 있다. 한편 이 時期는 中國東北朝에 이어서 統一王朝인 隋·唐代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各代에 걸쳐서 이루어진 中國王朝과의 人的·物的交流과 나아가 謙益의 印度遊學같은 史實에서 百濟佛教文化의 發展이 기약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 시기에 있어서 韓半島의 三國사이에는 相克이 그치지 않았으나 佛教文物의 交流가 비록 우리의 文獻에는 없으나 또한 빈번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海陸兩路를 통한 高句麗와의 交通 그리고 古新羅와의 交流는 公州期에 있어서의 羅濟同盟期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파탄된 이후에 있어서도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百濟의 佛教文物은 비단 바다 건너 멀리 日本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隣接된 古新羅에 대하여서도 오늘날의 추정을 넘어 重大한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신라 皇龍寺建立에 阿非知가 초빙된 유명한 사실은 백제 末期에 있었던 史實이나 또한 그 사이의 소식을 傳하여준 것이다. 聖王以來 國亡에 이르기까지의 中國各朝와의 交通사실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 사실은 그대로 百濟佛教文化 그리고 특히 佛像樣式에서 中國과의 관계를 고찰함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百濟·中國의 交通(三國史記)

扶餘末期	扶餘後期	扶餘前期	公州末期	治世	國都	中國遣使(數字는 回數)
義慈王(641~660)	武王(600~640)	威德王(554~597)	聖王(523~553)	熊津	梁(3)	
				泗泚	陳(4)北齊(3)後周(2)	
				泗泚	隋(3)唐(11)	
				泗泚	唐(5)	

* 泗泚遷都는 聖王 16年 538 A, D,
* 日本傳教는 聖王 16年 538 A, D,
(元興寺緣起에 의함)

最近년에 이르러 政府에 의한 中西部開發計劃에 따라 扶餘地區의 本格調査가着手되고 있다. 그리하여 上記와같이 一九八〇년부터 公州·扶餘에서의 寺蹟發掘이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百濟의 遺構와 遺物이 수습되고 있다. 특히 부여 定林寺址의 발굴은 尹武炳 忠南大教授에 의하여 成果를 올리고 있다. 佛像資料로서는 三尊石像片 이외에 많은 塑像片을 出土하였는바 그들이 모두 破片이라 하더라도 그 資料價値는 매우 크다. 필자 또한 최근에 이들 出土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두차례 얻었는데 그 안에는 귀중한 유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에서 百濟佛像彫刻의 多樣함과 中國과 그 以面地方과의 보다 깊은 連脈을 볼 수가 있었다. 더욱기上記한 바 新資料菩薩像의 捧珠는 필자에게 鼓舞的인 것이었다. 今春 五月경 그 報告書에 接하게된 것과 앞으로 百濟彫刻史研究의 前進을 기대하면서 本稿를 끝내고자 한다. 거듭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 古代文物의 해명은 新資料의 움바른 수습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를 위하여 既存資料의 檢討 또한 계속되어야 하겠다.

(東國大學校大學院長, 一九八一年 三月稿)

〈註〉

- ① 拙稿·百濟의 佛像彫刻(「百濟文化」第七·八合輯 公州師大 一九七五年刊)
- ② 市田次郎(日政 때 大邱居住) 소장의 金銅菩薩立像은 韓末(一九〇六年)에 부여 窺岩에서 또 하나의 金銅菩薩像(舊日本人 庭瀬 소장 현재 國博 소장)과 더불어 出土되었다가 日本人 憲兵의 손을 거쳐 市田이 買入한 바 되었고 그 후 日政末 당국의 寶物指定을 피하여 日本으로 搬出하였었다. 현재 그의 아들 이 京都에서 소장하고 있다.)
- ③ 이 金銅百濟佛에 대하여는 높이 약 八寸 光背가 있다 하였고 「現在世界 唯一의 至寶」 「法隆寺金堂諸佛과의 관계를 同寺佐伯老師가 肯定」 운운하고 있다. (大澤勝 「隨筆朝鮮」 上卷一四一頁 大正十四年三月刊) 이 全文은 考古美術資料二二輯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一六五頁에 옮겼다.
- ④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⑤ 藤澤一夫·鹿深臣百濟將來彌勒石像說(「史跡と美術」 一七七號 一九四七年三月)

⑥ 「陳列品圖鑑」 十四輯 一九三九年 朝鮮總督府刊

⑦ 上註六

⑧ 熊谷宣夫·錦城山石佛試論(「美術史」 二二號 一九五六年刊)

⑨ 拙稿·百濟石製小像斷片其一(其三)(「考古美術」 第三卷七號) 九號 一九六二年七月(九月)

⑩ 金永培·扶餘出土 半跏思惟石像(「考古美術」 九卷七號 一九六八·七)

⑪ 이 臨江寺址에서는 그 후多數의 塑像片이 出土되어 慶熙大博에 의하여 所藏되었다.

⑫ 「金剛寺」 國立博物館 一九六九年刊

⑬ 「博物館陳列品圖鑑」 十四輯 朝鮮總督府博物館 一九三九年刊

關野貞 「朝鮮의 美術と工藝」

⑭ 「朝鮮古蹟圖譜」

「扶餘博物館陳列品圖鑑」 國立扶餘博物館 一九七七年刊 圖版一四七、一四八

⑮ 「文化財大觀」 國寶篇 增補版 韓國文化財普及協會 一九七七年刊

⑯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六一二頁 寫眞 二一五、二一六

⑰ 「扶餘博物館陳列品圖鑑」 圖版一三七

⑱ 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品目錄 遺物番號五六、「 높이 五·五cm 幅 二·一cm」

⑲ 「博物館陳列品圖鑑」 十四輯 朝鮮總督府博物館 一九三九年刊

大西修也·百濟佛立像と一光三尊形式(MUSEUM 三一五號 日本東京博物館 一九七七年刊)

⑳ 李殷昌·瑞山龍賢里出土 百濟金銅如來立像(「考古美術」 九一七、一九六八年七月號)

㉑ 關野貞·朝鮮三國時代の 彫刻(「朝鮮의 美術と工藝」 所收 圖版 三一六) 이 小像은 높이 二寸八分로서 扶餘內窺岩面出土라고 하였다. (久野健·古代朝鮮佛と飛鳥佛 日本 東京東出版刊 一九七九年)

㉒ 拙稿·扶餘窺岩出土 百濟佛菩薩像(「美術資料」 八號 一九六三年 十二月 國立博物館刊 「韓國佛像의 研究」 所收)

㉓ 金元龍·羸島出土金銅佛像(「歷史教育」 五號 一九六一年 五月刊)

②③ 昭和十一年(一九三〇)度 古蹟調査報告書(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文化財大觀」寶物篇(中) 圖版四〇 文公部刊

②④ 拙稿・泰安의 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一七・一八合輯 一九六二年 六月「韓國佛像의 研究」所收)

②⑤ 拙稿・瑞山磨崖三尊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第二〇호 一九五九年 八月刊)
J、W、B、E、S、T = The Sōsan Triad Archives of Asian Art XXXIII/1960.

②⑥ 「文化財大觀」寶物篇

大西修也・百濟石佛坐像考(「佛教藝術」一〇七호 日本毎日新聞社刊)

②⑦ 「文化財大觀」(全羅北道) 一一〇頁

胎峯寺三尊石像 一九七九年 全北道廳刊

②⑧ 洪思俊・全北益山出土六朝鏡(「考古美術」一一一、一九六〇年 八月)

梅原末治・益山出土의 龍氏作 盤龍鏡(「考古美術」五一三、一九六四年 三月)

②⑨ 「扶餘博物館陳列品圖鑑」國立扶餘博物館 一九七八年刊

姜友邦・傳扶餘出土 蠟石製佛菩薩並立像(「考古美術」一三八・一三九合輯 一九七八年 九月)

③⑩ 「博物館陳列品圖鑑」十四輯 一九三九年 朝鮮總督府博物館刊

③⑪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圖版六

③⑫ 上註②⑩

③⑬ 關野貞・「朝鮮の 建築と 藝術」卷頭 圖版八

③⑭ 「文化財大觀」寶物篇(中) 圖版三七、寶物 一九五號

③⑮ 「文化財大觀」增補版 圖版 一一八 韓國文化財普及協會 一九七七年刊

③⑯ 金永塔・公州儀堂面出土 金銅菩薩立像「百濟文化」七・八合輯 一九七五年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刊

③⑰ 「韓國佛教美術」佛像篇 圖版十六 中央日報「季刊 美術」一九七九年刊

③⑱ 「文化財大觀」寶物篇(中) 圖版六七 호이 十八・八 cm 文化財管理局 一九六九年刊

③⑲ 上註 藤澤氏 論文

④⑰ 拙編・「韓國金石遺文」一〇九、戊寅銘蓮花寺四面石像

拙稿・忠南燕岐石像調査(「藝術院論文集」第三輯 一九六四年「韓國佛像의 研究」所收)

④⑱ 田村圓澄・「古代朝鮮佛教と 日本佛教」日本東京 吉川弘文館 一九八〇年刊

④⑲ 拙稿・金堤出土 銅板佛像(「佛教美術」第四號 東大博物館 一九八一年 四月刊)

④⑳ 拙稿・忠南燕岐石像調査(「韓國佛像의 研究」所收 一九七三年 서울 三和出版社刊)